



다시 읽는 칼빈의 설교 1

한 번의 가르침을 영원한 유익으로 (시편 119편)

이제 다윗은 율법의 성찰로 얻은 유익을 밝히고 나서, 결코 그것을 잊지 않을 것임을 첨가합니다. 이 말로 그는 하나님께 결코 배은망덕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우리들이 습관적으로 하는 그

런 배은망덕 말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악이 있지만, 배은망덕은 가장 큰 악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은총이 즉시 우리에게서 떨어져 나갈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것들을 매장하려고만 할 정도로 약해집니다. 우리가 그렇게 빨리 기억을 상실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따라서 다윗이 이 구절에서 주장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계명으로 살아났기 때문에 그것을 결코 잊지 않으리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그는 자신에 대해서 말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본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의무와 직무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구하실 때, 그는 그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무덤에서 건지시며, 우리는 결코 잊을 수 없고 언제나 기억해야 할 그런 은총을 느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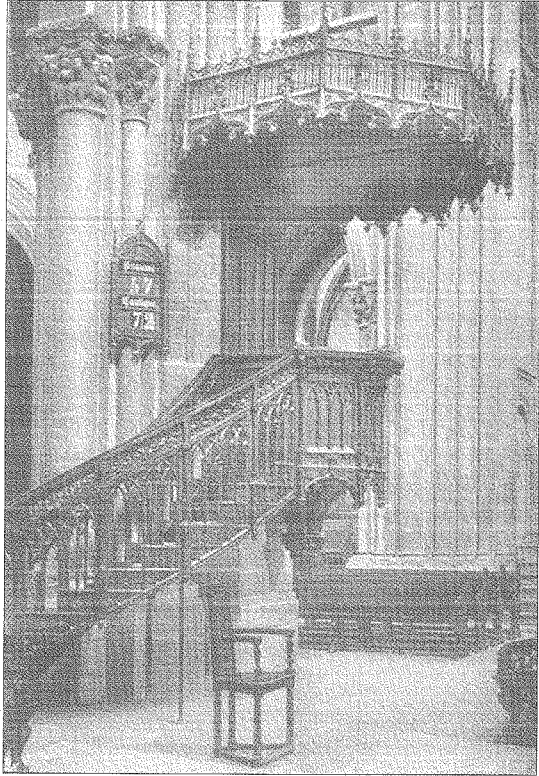
사실 말씀은 그 능력을 결코 상실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사용함으로써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빵을 먹으며 그 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것을 찾아야 합니다. 포도주를 마시면 통이 비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도와 살릴 때, 그것은 언제나 통째로 있으며 결코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본을 따라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 부여하신 능력을 활용하는 법과 그것을 결코 망각하지 않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런데 다윗은 한 가지 것을 더 말하고자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그에게 유익을 준 이상, 앞으로도 그것을 활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 한 번만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안에서 주어지는 위로를 통해 보존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그래야 하는 것임을 압니다. 이것은 길게 설명되지 않으면 애매해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다윗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맞보지 못한 채 마치 쓰러진 자처럼 된다면, 그때 그에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파멸과 멸망을 위함이 아니라 회개로 이끌어 그의 인자하심을 느끼게 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훈계 받을지라도, 자신에게 주어진 치유를 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훈계가 그에게 아무 소용없을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때 그는 그 훈계에 담겨있는 위로를 빼앗기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그에게 온갖 악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것에 유의하십시오. 즉 그가 하나님의 계명으로 살아났기 때문에 그것을 결코 잊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한 셈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말씀을 수단으로 나를 한번 보호하셨을 때, 당신이 그 말씀에 이



런 능력과 이런 특성을 부여 하셨을 때, 사망한 것과는 같 았던 내가 분명하게 구원의 회복을 느꼈습니다. 그때 당 신은 내가 평생 해야 할 것을 내게 가르쳤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것을 실천하는 것, 지속적 연구를 통해 당신의 부성에 로 내게 주어진 증거들을 생 각하는 것입니다. 이는 내가 그것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 함이며, 확신을 얻기 위함이며, 당신이 나를 결코 버리시 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내가 느낀 당 신의 말씀에 대한 용도는 내

평생 그것을 나의 유익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나에 대해 꾸미는 모든 것에 맞서며, 악인들이 나와 전쟁하려 할 때 당신에 대한 경외와 사랑으로 인내하기 위 해서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당신은 당신의 말씀이 언제나 내 앞에 있어야 함 을 내게 보이신 것입니다.”

사실 말씀은 그 능력을 결코 상실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용함으로써 소멸되 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빵을 먹으며 그 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것을 찾아야 합니다. 포도주를 마시면 통이 비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도와 살릴 때, 그것은 언제나 통째로 있으며 결코 줄어들지 않습 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본을 따라 하나님이 그의 말씀에 부여하신 능력을 활용하는 법 과 그것을 결코 망각하지 않는 법을 배웁시다.

• CO 32, 623-624, 「칼뱅의 시편 119편 설교」, 박건택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4) pp. 220-222에서 역자의 동의하에 발췌하여 재인용

